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2학년도 한수 파이널 3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주목할 문항 TOP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문항		
Top ⑤	12번	(독서 : 사회) - 세부 일치
Top ④	15번	(독서 : 기술) - 세부 일치
Top ③	8번	(독서 : 인문)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견해 비교
Top ②	11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상황 분석
Top ①	17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그래프 분석

[문학] : 현대소설, ‘돌다리’ [18~21] / 고전소설, ‘홍보가/박타령’ [22~26]

[언어와 매체] : 37번, 38번, 41번

[화법과 작문] : 37번, 43번

[독서] 사회 지문 :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관한 법률

#Chapter 2. ‘영역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Top ⑤] : 독서-사회 1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세부 일치]	
[Killer-Point]	<p>12.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은 가질 수 없는 권리이다. ②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권리이다. ③ 피상속인의 4촌 형제는 상속인의 자격을 얻더라도 가질 수 없는 권리이다. ④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⑤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면 한 명뿐인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지문에서 '상속 포기자'에 대한 개념만 확인하고 1번 선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에서 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문으로 돌아갔어야 한다.</p> <p>'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은, 상속 포기자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대습상속'에 관한 내용이지,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아예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p> <p>그 다음 문장을 보면,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친족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p> <p>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피상속인 A가 있고 자녀 B, 손자녀 C가 있었을 때 자녀 B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자. 그러면 손자녀 C는 B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B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손자녀 C는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이 될 수는 있다. 친족 관계가 자신보다 우선인 자녀 B가 상속 포기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다.</p> <p>정리하자면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속인'이 될 수는 있는 것이다.</p> <p>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 역시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다.</p>

[Top ④] : 독서-기술 15번 문항

[세부 일치]	
[Killer-Point]	<p>15. '유압식 디스크 제동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ABS가 없는 차량은, 급제동 시에 바퀴의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② ABS가 없는 차량은, 급제동 시에 슬립율이 최댓값까지 높아질 수 있다. ③ ABS가 없는 차량은, 등속 주행 중에 제동 페달을 밟으면 슬립율이 상승한다. ④ ABS가 장착된 차량은, 급제동 시에 슬립율의 증감이 무수하게 반복된다. ⑤ ABS가 장착된 차량은, 급제동 시에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 간의 간격이 변화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⑤]</p>
	<p>지문에서 'ABS'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왔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선지를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p> <p>먼저 5번 선지의 내용을 보자. '급제동 시에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 간의 간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p> <p>유압식 디스크 제동 시스템에서는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 로터에 맞게 하여, 즉 둘 사이의 간격을 없애므로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p> <p>다음으로 'ABS'의 기능을 보자. 'ABS'는 급제동 시의 잠김 현상을 자동적으로 방지하여 주행 안정성과 조향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ABS'는 슬립율이 1이 되지 않도록, 즉 '잠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 유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p> <p>이는 바꿔 말하면 'ABS'가 작동되면 슬립율이 1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뜻이다.</p> <p>정리해보자. 'ABS'는 브레이크가 과하게 작동하여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ABS'가 장착된 차량에서도 브레이크는 작동한다.</p>
[유사한 평가원 지문] - 2011학년도 9월 모평	
<p>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p> <p>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p> <p>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10^{-9}m$)에서 수 마이크로미터($10^{-6}m$)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p>	

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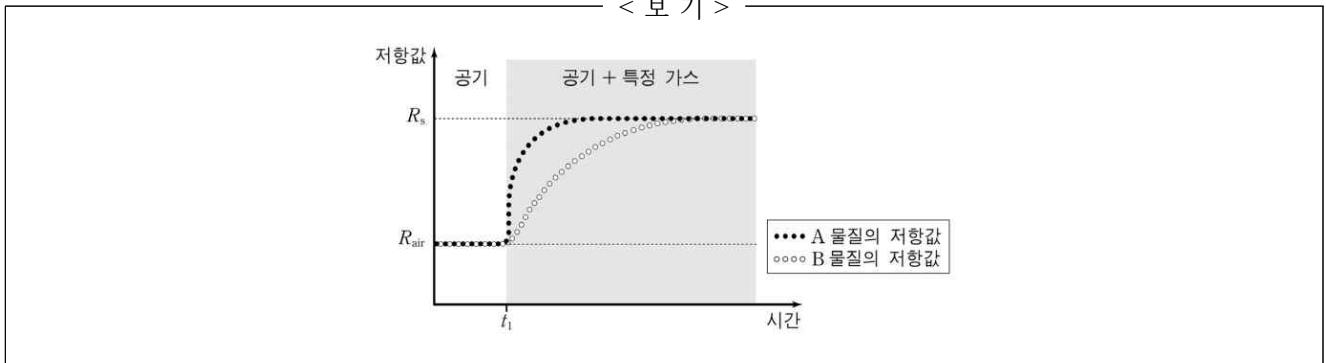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감도, 응답시간, 회복시간이다. 응답감도는 특정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상태 저항값(R_s)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R_{air})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흡착: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탈착: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50. 산화물 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①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②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③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A와 B의 저항값이 같다.
- ⑤ t_1 직후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A의 저항값 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다.

[정답 : ③]

[Top ③] : 독서-인문 8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견해 비교]

8.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타인과의 경쟁심이 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사회가 형성되면서 불평등이 야기된다. 강자들의 의지만이 관철되는 정치 체제가 형성되면 억압적인 문명 상태가 만들어지므로, 온전한 사회 계약을 통해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 **을**: 군주제는 신의 뜻에 합치되는 정치 체제로, 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은 그를 비판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 **병**: 분산적 통치 질서 속에서 단일 종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이념으로는 국내에서의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적·정치적 세력들에 대해 중립적이면서도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왕에게 절대적·항구적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Killer-Point]

- ① '갑'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홉스의 주장에 동의하겠군.
- ② '갑'은 30년 전쟁의 원인이 강자들의 의지를 좌절시킨 억압적인 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③ '을'은 국민이 왕을 비판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홉스와 동일한 이유에서 찾고 있군.
- ④ '병'은 강력한 주권자를 세워 사회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홉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병'은 30년 전쟁이 중세적 통치 질서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보겠군.

[정답 : ⑤]

<보기>의 '갑, 을, 병'이 지문에 제시된 철학자들과 직접 연결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문장 단위로 하나씩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병'의 입장을 보자.

1. 단일 종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이념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2. 종교적·정치적 세력들에 대해 중립적인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가)를 보면 '중세적 통치 질서'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분리되지 않은 채 중첩,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세적 통치 질서' 안에서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30년 전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30년 전쟁'은 '중세적 통치 질서' 안에서 종교들 간의 갈등이 결국 정치적 갈등으로 연결되어 발발하게 된 것이므로, '병'의 입장에서는 이 '30년 전쟁'이 '단일 종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이념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유사한 교육청 지문] - 2020년도 4월 학평

철학자 악셀 호네프는 현대 사회는 개인이 자아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병리적 사회가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병리적 사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네프는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한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자아 형성 과정을 '목적적 나'와 '주격 나'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 여기서 목적적 나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과 기대를 일반화하여 형성한 자아상을 말한다. 즉 목적적 나란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아상이다. 그리고 주격 나란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기 이전의 자아상으로, 개인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주격 나란 목적적 나를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수도 있다.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발할 때는, 주격 나가 새로운 자아상을 목적적 나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목적적 나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개인은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호네프에 의하면 개인의 주격 나가 목적적 나에 반응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 즉 개인과 타인의 상호 인정이 전제된다. 그래서 개인은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 상호 인정 관계에서 자아를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무시를 경험하면, 해당 개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된다.

호네프는 상호 인정 관계와 이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는 원초적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정서적 배려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원초적 관계에서 정서적 배려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가 충족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자신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학대나 폭행과 같은 무시를 경험하면 자신감은 파괴된다. 두 번째는 권리 관계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법적 권리를 존중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권리 관계에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은, 사회로부터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마땅히 충족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법적 권리가 사회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기존중감은 파괴된다. 세 번째는 가치 공동체 관계로, 개인이 어떤 가치나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개성, 즉 능력과 속성을 인정받는 상호 인정 관계이다.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인 자부심을 형성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부정되는 무시를 경험하면 자부심은 파괴된다.

호네프는 이처럼 세 가지 상호 인정 관계에서 개인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때, 개인은 성공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인정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질서란 개인의 자아를 인정 대상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나 원칙이다. 호네프는 개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기존 인정질서에 주장하면 개인은 기존 인정질서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저항은 기존 인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으로 확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모든 저항을 ㉠인정투쟁이라고 명명한다. 특히 그는 권리 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호네프는 인정투쟁이 현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37.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홉스는 인간들이 갖는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가 적이 되어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 불안 상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호네프트는 ㉠을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로, 홉스는 ㉡을 불안이 해소된 상태로 보고 있군.
- ② 호네프트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에게 굴복하게 되고, 홉스는 ㉡에 의해 개인이 상대와 공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③ 호네프트는 ㉠의 결과 개인이 인정질서를 확장한다고, 홉스는 ㉡의 결과 개인이 사회 질서에 복종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④ 호네프트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홉스는 ㉡으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군.
- ⑤ 호네프트는 ㉠을 자아실현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홉스는 ㉡을 개인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군.

[정답 : ③]

[Top ②] : 독서-사회 1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상황 분석]

11.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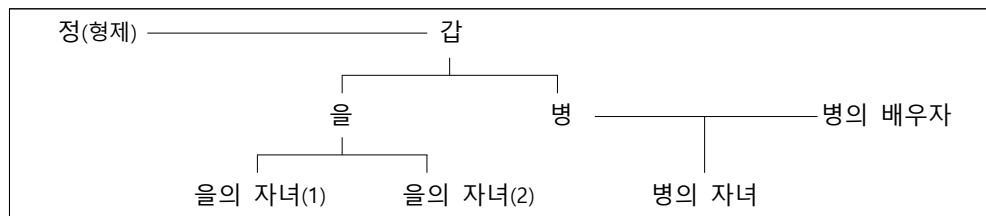
'갑'은 배우자 없이 '을'과 '병'을 자녀로 두고 있다. '을'은 배우자 없이 두 자녀가 있고 '병'은 배우자와 한 자녀가 있다. '정'은 '갑'의 유일한 형제이다. 어느 날 '갑'과 '병', '병'의 배우자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다. '갑'은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

- ① '정'은 '을'과 달리 상속인이 되지 않겠군.
- ② '병'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을'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겠군.
- ③ '갑'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갑'의 재산과 채무는 1.5:1:1의 비율로 상속되겠군.
- ④ 비행기 사고 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갑'의 손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받겠군.
- ⑤ 비행기 사고에서 '병'의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면, '병'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겠군.

[정답 : ④]

[Killer-Point]

먼저 <보기>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머리로 정리가 어렵다면 직접 가계도를 그려보면 된다.



여기서 비행기 사고로 '갑', '병', '병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다.

이때 '병'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었는데, 피상속인 '갑'과 함께 사망하였으므로 '병'의 직계비속인 '병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이제 4번 선지를 보자. 4번 선지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을'이 먼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을'은 '갑'의 상속인이었는데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을'의 자녀 (1), (2)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갑'의 손자녀인 '을의 자녀 (1), 을의 자녀 (2), 병의 자녀' 셋 모두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상속 비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을'에게는 자녀가 2명이라는 것이다. 지문에 따르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상속받았을 재산과 채무를 자신의 법정 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그리고 '을의 자녀 (1), (2)'는 동일한 상속 순위의 '공동 상속인'이므로, '을'이 받을 상속분을 1:1 비율로 나눠서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병'은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병'이 받을 상속분을 '병의 자녀'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을'의 자녀 (1), (2)와 '병의 자녀' 사이에 상속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갑'의 재산이 100만원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을'이 받을 상속분과 '병'이 받을 상속분은 1:1 비율로 나뉘므로 각각 50만원씩 돌아가게 된다.

이때 '을'의 자녀 (1), (2)는 '을'의 상속분을 다시 1:1 비율로 나눠서 상속받게 되므로, '을'의 자녀 (1), (2)가 받게 될 상속분은 각각 25만원씩이 될 것이다.

반면 '병의 자녀'는 '병'이 받을 상속분을 모두 받게 되므로, 5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갑'의 손자녀들이 모두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맞으나,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평가원 지문] - 2020학년도 9월 모평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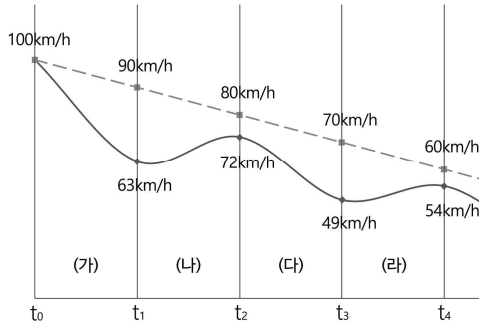
[정답 : ③]

[Top ①] : 독서-기술 17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 그래프 분석]

17.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아래는 시속 100km로 등속 주행하다가 급제동한 차량의 ECU에 기록된 속도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 ① t₁ 시점의 슬립율은 0.3, t₂ 시점의 슬립율은 0.1이군.
- ② ECU가 최초로 브레이크 유압의 '유지'를 명령한 구간은 (나)이겠군.
- ③ ECU에 설정된 슬립율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0.3보다 작고 0.1보다 크겠군.
- ④ (라)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유압의 '유지'와 '감소'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겠군.
- ⑤ 주행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느려지는 동안 브레이크 유압의 '증가' 명령은 두 번 내려졌겠군.

[Killer-Point]

[정답 : ④]

<보기>에 그래프가 2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파악했어야 한다. 먼저 'ECU'는 '회전 속도'와 '주행 속도'를 감지한다고 하였으니, 각각의 그래프가 '회전 속도' 또는 '주행 속도' 중 하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문에서 'ABS'가 작동하게 되면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슬립율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사이클이 무수히 반복된다고 하였으므로, 물결 모양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우하향하는 아래의 그래프가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직선으로 우하향하는 위의 그래프가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파악해줘야 하는 것은 '브레이크 유압'과 '회전 속도' 사이의 관계이다.

브레이크 유압이 '감소'하게 되면 패드와 로터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이 약해지므로,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반대로 브레이크 유압이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느려진다. 즉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관계에 '슬립율' 개념까지 더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브레이크 유압 ↓ → 회전 속도 ↑ → 슬립율 ↓

브레이크 유압 ↑ → 회전 속도 ↓ → 슬립율 ↑

이제 4번 선지를 보자. (라) 구간에서 브레이크 유압에 대해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립율'의 상한, 하한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한다.

4문단에 따르면 슬립율의 상한과 하한 구간은 이상적인 구간(0.1~0.3)보다 작게 설정된다. 즉 ABS는 슬립율이 0.3이 되기 전에 브레이크 유압을 낮춰 슬립율을 낮추라는 명령을 내리고, 슬립율이 0.1이 되기 전에 브레이크 유압을 높여 슬립율을 높이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제 (라) 구간을 보자. (라) 구간이 시작하는 t_3 시점에 슬립율을 구해보면 0.3이 나온다. 그런데 위에서 봤다시피 ABS는 슬립율이 0.3이 되기 전에 슬립율을 낮추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므로, t_3 시점이 되기 전에 이미 브레이크 유압의 '감소'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라) 구간의 회전 속도 그래프를 보면 회전 속도가 최저 지점을 찍은 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브레이크 유압 '유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문에서 브레이크 유압 '유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슬립율이 하한에 이를 때까지 하락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t_4 시점, 즉 (라) 구간의 끝부분에서 다시 회전속도 그래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슬립율이 하한보다 낮아져서 브레이크 유압의 '증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 구간에서는 브레이크 유압의 '유지' 명령과 '증가' 명령만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교육청 지문] - 2017년도 10월 모평

기계나 설비 등이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온도, 압력, 유량, 회전 속도 등의 물리량을 조절하는 기술을 제어 기술이라고 한다. 제어 대상의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잰 측정값을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력되는 조작량을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흔히 활용된다. 이 장치에서는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on되어 가열기에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off되어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스위치가 on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되고, 스위치가 off일 때에는 조작량이 0%가 된다.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 on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여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off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이 발생한다.

on/off 스위치 방식은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on/off 스위치 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된다. PID 제어 방식은 P(비례) 제어, I(적분) 제어, D(미분) 제어를 모두 활용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제어 방식, PI 제어 방식,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하여,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예컨대 P 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의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경우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스위치를 on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서는 스위치의 on과 off 동작이 반복된다. 즉,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on 시간이 off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on과 off 시간이 1:1인 동작이 반복된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off 시간이 on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을 넘으면 off 상태를 유지한다. 이처럼 P 제어를 활용하면 측정값을 설정값에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할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P 제어에서는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 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의 위 또는 아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잔류편차'라 한다.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 제어가 활용될 때,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on과 off의 반복 동작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편차가 커지지만 헌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편차가 작아지지만 헌팅이 발생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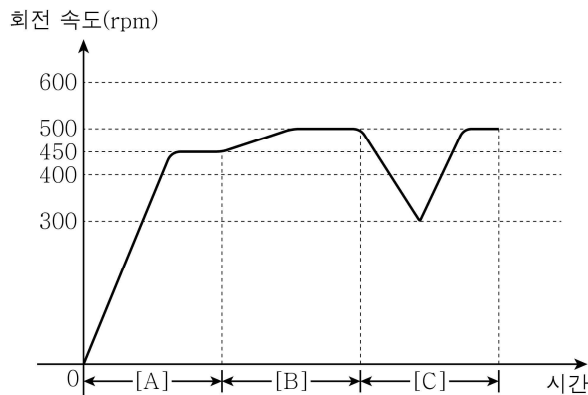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설정값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적분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적분 시간을 통해 동작의 세기를 조절한다.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강해져 잔류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지만 헤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약해져 헤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잔류편차를 없애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P 제어나 PI 제어만 활용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이때 D 제어를 활용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 조절하는데,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오버슈트가 발생하기 쉽다.

3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P 제어, [B]에서는 PI 제어, [C]에서는 PID 제어를 활용하였다. (단, 설정값은 500 rpm*, 비례대는 400 ~ 600 rpm, 잔류편차는 50 rpm이다.)



* rpm : 1분당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

- ① [A]에서 비례대가 430 ~ 570 rpm으로 수정되면 잔류편차는 50 rpm보다 크겠구나.
- ② [B]에서 헤팅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헤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 ③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 ④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30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 ⑤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겠구나.

[정답 : ④]

#Chapter 2. “영역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 [18~21번 지문][이태준, '돌다리']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알겠는데 제가 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인물입니다.”

#EBS 수능특강 연계 # 수능특강(159p) # 수능특강 사용설명서(177p)

[EBS 작품 풀이]	
<p>이 작품은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 소설이다.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땅이 천지 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물이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주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가치관과 태도는 일제 강점하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p>	
주제	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비판
전체 줄거리	
<p>서울에서 권위 있는 의사인 창섭은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내려온다. 창섭은 땅을 정성스레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니 땅을 팔자고 설득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죽기 전에 땅을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하고,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다음 날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삶이 천리(天理)임을 되새긴다.</p>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전통 사회에서 ❶ 자연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❷ 자연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자연을 이용하며 사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아버지에게 ❸ 자연은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면서 오래도록 보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작가는 자연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과 신념을 보여 줌으로써 자연과 상생하는 삶의 방식을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창섭은 자신의 병원 확장을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 땅을 팔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마에 무너진 마을의 돌다리를 보수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엿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보지 않드라."

"....."

(중략)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얹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열말 굶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났던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얹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네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 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탈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프른 것은 참아 가며 입에 얻어 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종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諷刺)의 시였다.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굶으로도, 가운데굶으로도 끝엿굶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쭈우쭈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젓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고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닛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 이태준, 「돌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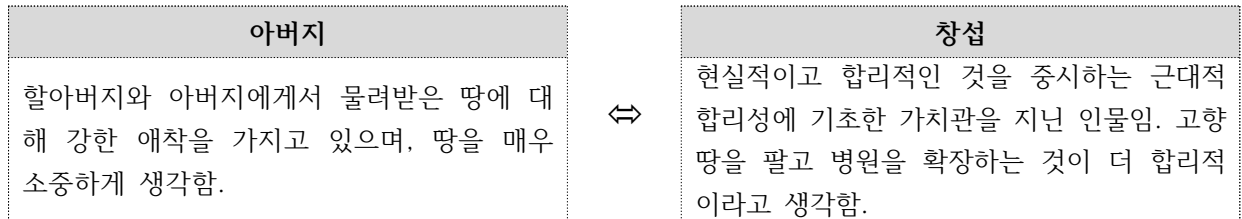
* 천찰: 천자문을.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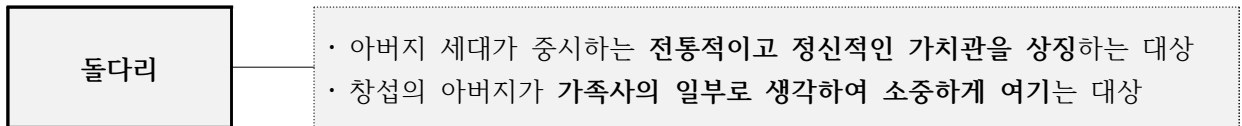
[포인트 1] 이야기 구조와 인물 관계도

발단	서울에 거주하며 내과 의사인 창섭은 서울에서 병원을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됨. 창섭은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향 땅을 팔도록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고향에 내려옴.
전개	창섭은 누이동생의 죽음과 누구보다 오직 땅만을 정성스레 가꿔 온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초입에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남.
위기	창섭은 부모님을 자신이 모시고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할 겸 땅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제안함.
절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이 죽기 전에 땅을 성실하게 잘 가꿀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창섭은 자기와 아버지의 세계 사이의 거리감을 느낌.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서울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자신이 고친 돌다리에서 세수를 하며 땅을 지키는 삶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되새김.



[포인트 2] 소재 '돌다리'의 의미

- 돌다리는 창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세대가 중시하는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돌다리는 아버지가 어릴 적 글을 배우러 다니던 다리이며, 어머니가 시집을 때 가마를 타고 건너온 다리이다. 또 조상의 산소에 놓은 상들을 옮긴 다리이며, 아버지 자신의 장례를 치를 때 상여가 건너갈 다리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가족의 일들과 관련 있는 돌다리를 단순한 사물로 보지 않고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가족사의 일부로 여기고 정성을 쏟고 있다.**



[포인트 3] '창섭'의 감정 - 모순된 심리 상태

- 아들인 창섭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지닌 의사로, 아버지는 구세대의 전형적인 농부로 등장한다. 아버지는 땅을 팔자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땅을 팔 수 없다는 생각을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 아버지가 어떤 어른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세계를 그것 자체로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버지가 중시**

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세계를 자신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가 느끼는 감정은 결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경스러워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심정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 양귀자, 「마지막 땅」
 양귀자의 연작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에 수록된 소설로, 땅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강 노인과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고 땅값을 올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값이 많이 오른 땅을 팔라고 강 노인을 회유하지만 강 노인은 그런 사람들을 '서울 것들', '서울 꼬나풀들'이라고 말하며 외면한다. 하지만 강 노인이 농사를 지으며 뿌리는 두엄으로 인한 냄새로 마을 사람들은 반상회까지 개최하며 노인을 압박한다. 선대로부터 염원해 온 부농의 꿈을 자신의 대에서 이룬 강 노인에게 땅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다. 그에게 땅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이다. 그는 땅의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며 그 속에서 정서적 위안을 얻는다. 그런 그가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강 노인은 도시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 대신 전통적 삶의 방식과 정신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EBS 「Q & A」

Q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돌다리는 아버지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 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다리를 정성스럽게 고치는 행위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고유한 가치, 신념 등의 정신적 유산들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BS 핵심 문제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돌다리」에서 서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다. 아버지와 아들 창섭의 갈등은 전통적·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합리성 중 무엇을 추구하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병원 확장과 관련된 아들의 제안, 제안에 대한 아버지의 거절과 그에 대한 이유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작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는 ① 인물 간의 대화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전개되는 양상, ② 인물들의 생각을 제시하는 화법이나 어조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암시함과 동시에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같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선지	①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병원을 생각하는 창섭의 가치관은 그가 땅을 대하는 관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②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등의 상호 소통이 아닌 대화 상황에서, 두 세대가 일정한 거리를 지닌 합치되기 어려운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군. ③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아들의 의견에 다소 걱정적인 어조로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데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군.

	<p>④ 아들의 의견은 간접 화법의 방식으로 제시된 데 반해 아버지의 견해는 직접 화법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생생하게 제시된 것에서, 작가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전통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군.</p> <p>⑤ 자신의 견해를 하늘의 덕, 보답을 하는 땅 등을 근거로 역설하는 아버지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부모님의 도시로의 이주, 가격이 싼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 등의 근거들을 합리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나열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인물 간의 대립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정답 해설</p>	<p>③ 병원 확장 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아들의 의견에 대해, 아버지는 의문문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선언에 가까운 문장들을 사용하는 등 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없다.</p>
<p>오답 풀이</p>	<p>① 병원을 주로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아들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창섭의 그러한 가치관은 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모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p> <p>② 아버지는 아들의 제안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의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그저 자신들의 가치관에 기댄 의견들을 다소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대화 상황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④ 아들의 의견은 따옴표 처리 없이 간접 화법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아버지의 진술은 서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화법을 통해 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다. 직접 화법을 통해 인물의 말을 그대로 제시할 경우 작가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인물들의 생각을 제시하는 화법과 같은 서술 방식의 차이를 활용하여 아버지가 중시하는 정신적이며 전통적인 가치의 보존과 같은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p> <div data-bbox="311 1261 1453 198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기출로 확인] 간접 화법 직접 화법</p> <p>간접 화법: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자신의 말로 바꾸거나 자신의 말을 일반화, 객관화하여 남에게 전달하는 방법</p> <p>직접 화법: 큰 따옴표를 활용하는 식으로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p> <p>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p> <p>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서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p> </div>

Q.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O)

- 2008학년도 6월 평가원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⑤ 아버지는 땅을 팔 수 없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해 사람에게 미친다는 점,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을 하는 땅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정신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댄 의견들을 역설한다. 반면 아들은 한집에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는 것이 자기가 병원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점, 환자가 늘고 있으므로 병원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마침 가격이 싼 건물이 매물로 나온 점 등 현실적인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와 인물 간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함께 볼 지문] “기출로 확인, <같은 작품, 다른 부분>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태준, 「돌다리」”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베풀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

[A]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발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노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노 독에 선 느르지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보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문제 1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문제 선지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정답 해설	⑤ 사건의 발생순서는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아버지가 다시 개울가로 나가다 →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다 →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오답 풀이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향을 찾아가는 창섭의 심리와 처지(땅을 팔자고 할 수밖에 없는 창섭의 처지)를 서술함. 2. 고향집에 도착한 창섭이 어머니와 대화하고, 이를 보고 개울에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 3.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4. 아버지가 창섭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고 있는 현장을 가 보기 위해 다시 개울로 나감. 5.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창섭에게 땅을 팔 수 없는 이유와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힘.

문제 2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정답 해설	② 서두 부분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을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와, 지문 끝 부분의 아버지의 발화를 통해 '완고한 아버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아버지)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해소하는 인물'로는 볼 수 없다. ③ [A] 부분의 '지금 시국이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을 통해 창섭이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들은 것일 뿐 그러한 세계를 '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 갈등을 조정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이 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서울루! 제발 아이들하구 한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는,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일 뿐 어머니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 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정답 해설	② [A]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발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병원 확장 계획과 땅을 팔아 부모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 자체가 창섭이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므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든 것일 뿐이므로 이를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려는 건물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므로 이를 창섭의 '배려심 많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려면 장면을 직접 제시하는 대화가 더 적절한데 [A]는 창섭이 한 말을 작가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섭의 말투가 아니라 창섭이 한 말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말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 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정답 해설	⑤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로 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인물이므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의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넌 그 다리서 고기를 잡던 생각두 안 나니?',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를 통해 마당의 은행나무는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④ '장소애의 의미'란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이라는 아버지의 발화를 말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고전소설 [22~26번 지문] [작자 미상, '흥보가'] / [신재효, '박타령']

“이 박을 타거 으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잉뽀화가 나오너라! 잉뽀화가 나오거든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96) #사용설명서(p216)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등장인물들의 익살스러운 재담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 **해학성이 가장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흥보가」를 일명 「박타령」이라고 하는데, 흥보와 놀보가 박을 타는 대목에서 부르는 노래인 '박타령'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박 속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온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는 **당대 민중이 직면하고 있던 절대적 빈곤과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표면적으로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내세우면서도** ②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부조리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기출로 확인] 해학성 : 웃음을 바탕으로 한 풍자와 익살스러움.

골계미 : 웃음을 바탕으로 풍자나 해학의 기법을 통해 익살스러움을 나타내는 미적 범주의 하나.

희극 :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에 존재하는 모순과 부조리 같은 약점을 묘사하여 골계미를 드러내도록 하는 극의 양식.

조조가 목을 막 늘어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육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보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큰 장끼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Q.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미가 살아나고 있다. (O)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작자 미상, 「적벽가」 -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조선 사회의 부조리

작품 풀이

형인 놀보는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하며, 아우인 흥보는 선량하고 우애가 깊다.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고 흥보네 가족을 내쫓는다. 흥보는 살아가기 위해 온갖 품팔이를 다하며, 심지어는 매품까지 판다. 어느 날 흥보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열린 박 속에서 나온 재화로 부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안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고쳐 주고, 이듬해 봄에 제비가 놀보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놀보는 박 속에서 나온 노승, 상여꾼, 초라니패 등에 의해 **패가망신을 당한다.** 흥보는 놀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조선 후기에는 신흥 부호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그중에는 신분이 낮은 ‘하층민 부자’도 있었다. 이들은 장사나 공산품 생산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지만, 도둑질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층민 부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경제력을 이용하여 본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① **본래의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정체가 탄로 나서 다시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으며,** ② **양반 신분을 매수하더라도 기존의 양반층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흥보가」에는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이놈 놀보야. 옛 상전을 모르느냐? 네 할아버지 덜렁쇠, 네 할미 허튼덕이, 네 아버지 꺾덕놈이, 네 어머니 허천네, 다 모두 우리 집 종이라. 병자 팔 월에 과거 보러 서울 가고 우리 집 사랑이 비었을 제 흥악한 네 아버지 놈 가산 모두 도둑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였으니 여러 해 탐지하되 종적을 모르더니 조선에 왔던 제비 편에 자세히 들어 보니 네놈들이 이곳에서 부자로 산다기로 불원천리 나왔으니 네 처자 네 세간을 박통 속에 급히 담아 강남 가서 종살이를 하라.”

놀보가 들어 보니 정신이 캄캄하여 아무렇다 못 하겠다. 아니라 한들 삼 대나 되었으니 증인 설 사람 없고, 싸워 보자 해도 이 양반 생긴 것이 불에 넣어도 안 탈 테요, 송사를 하자 하니 종장은 근본을 읊춘이 다 알게 될 터이니 어찌하면 무사할꼬. 저 혼자 궁리할 제 저 양반의 호령 소리 갈수록 무섭구나.

[중략 줄거리] 놀보가 노인에게 양민에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하자 노인은 주머니를 주며 재물을 가득 채워 오라고 한다.

돈 천 냥 잠근 궤를 궤째 모두 밀어 넣어도 어디 간지 알 수 없다. 이대로 하다가는 목은 상전 고사하고 자신을 팔아 버려 새 상전 생기겠다. 부피가 크기로 곡식을 넣어 보자. 쌀 백 석을 넣어 보아, 2백 석 3백 석을 곧 넣어도 그만이라. 벼 천 석 쌓은 노적거리, 나뭇더미, 짚더미, 심지어 뒷간 거름 모두 다 쓸어 넣어도 발심도 아니 한다. 놀보가 겁을 내어 주머니를 들고 보아, “이게 어디 구멍 났나?”

주머니 밑을 다 보아도 가죽으로 만든 것이 바늘 찌를 틈이 없어, “애겨 이것 어찌할꼬. 사람 죽일 것이구나.”

주머니를 가지고서 노인 앞에 다시 빌어, “여보시오, 상전님, 이게 무슨 주머니요?”

“네 이놈, 왜 묻느냐?”

“아무것이라도 들어가면 간데없소.”

“에라, 이놈 간사하다. 그럴 리가 왜 있으리. 조그마한 주머니를 채워 오라 하였더니, 아무것도 아니 넣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이리 오너라. 네 저놈 매를 때려라.”

놀보가 황겁하여 애절히 빌며, “비옵니다, 상전님. 덕택에 삽시다. 공전, 속전(贖錢)* 또 바쳐도 이 주머니는 채울 수 없소.”

“네 원이 그러하면 네 할아버지, 네 할미,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아들, 네 딸년, 네놈까지 일곱 식구, 한 사람당 일천 냥씩 칠천 냥을 바치라. 만일 잔말을 하였다가는 네놈을 여기에 넣으리라.”

주머니를 떡 벌리니 놀보가 황겁하여 칠천 냥을 또 바치니, 저 양반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들여 치니 경각에

간데없다. 그리하여 놀보가 속량(贖良)*을 하더니 상전이라 아니 하고 생원으로 부르며, “여보시오, 생원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머니 이름이나 가르쳐 주옵소서.”

속 얇은 저 양반이 먹을 것을 다 먹더니 마음이 희희낙락하여 수작을 좋게 하여, “이 주머니가 능천낭이다. 천지개벽한 이래로 윤리와 의리 없이 모은 재물을 뺏어 오는 주머니다.”

“뉘 것 뉘 것 뺏어 왔소?”

“어찌 다 말하겠나? 한나라 양기(梁冀)의 세간은 한 편 귀도 못 차더라.”

“그 세간은 얼마나 되더라우?”

“돈만 해도 삼십여만 냥이지.”

- 신재효, 「박타령」-

* 속전: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

* 속량: 몸값을 받고 노비 신분에서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포인트 1] 판소리 사설의 특징

반복, 열거	반복과 열거를 통해 리듬감이 있는 운문체로 사설을 전개하기도 하고,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황하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함.
현재 시제 사용	‘춤을 추면서 논다’,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등과 같이 현재 시제로 이야기를 전달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현장감을 느끼게 함.
해학적 표현	과장된 표현, 우스꽝스러운 행동 묘사 등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이 자주 나타남.
구어체, 대화체와 비속어 표현	생활 속의 언어, 대화체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비속어 표현도 나타남.
사투리	판소리 사설이 형성되었던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향토적 느낌을 줌.

[포인트 2] 「흥보가」에 반영된 당대 사회의 현실

농민층의 분화 (부익부 빈익빈)	⇒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서민들이 있는 반면, 놀부와 같이 부를 축적한 부농들도 성장하고 있었음.
자본주의의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	⇒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석송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부러워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음.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흥보가」의 해학미

흥보가는 판소리 사설 중 특히 **해학미**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흥보의 가난함을 묘사하는 부분, 흥보가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매품을 팔러 갔다 실패하는 부분, 박타는 장면 등 곳곳에 해학적 사설이 이어진다.

<p>해학적 표현의 효과</p>	<p>판소리를 듣는 청자들의 긴장을 이완하고 웃음을 유발함.</p>
<p>해학적 표현의 의도</p>	<p>서민들의 비참한 현실, 비극적 상황을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p>
<p>EBS 「Q & A」</p>	
<p>Q</p>	<p>흥보 아내와 흥보 큰아들 사이에 오가는 재담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p>
<p>A</p>	<p>소리꾼의 익살과 재치를 보여 주는 재담은 주로 전형적인 구조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문항 3'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긴장감을 형성하다가(구조 만들기) 그 예상을 무너뜨리는 엉뚱함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며(구조 무너뜨리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재담의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지문의 해당 부분에 연결시켜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45%;"> <p>“여, 밥판이 어떻게 되셨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험단 말이오?”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p> <p style="text-align: center;">↓</p> <p>“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겼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텅겨 봅시다.” ‘탁’ 텅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뺏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 갖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8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구조 만들기</p> <p>흥보 아내와 흥보 큰아들 사이의 갈등 구도 형성 ⇒ 긴장감의 형성, 고조</p> </div>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8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구조 무너뜨리기</p> <p>흥보 큰아들의 엉뚱한 화제 전환 ⇒ 긴장의 이완</p> </div> </div> </div>
<p>EBS 핵심 문제</p>	
<p>발문</p>	<p><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흥보가」의 박타는 장면은 이 작품의 절정으로,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대리 만족과 쾌감을 준다. 당시 서민들이 이 박타는 장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흥보의 박 속에 서민들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흥보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물건은 흥보가 소망하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다. 흥보는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인물로, 그가 박을 타 얻게 되는 것들에는 최소한의 생존도 해결하지 못했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p>
<p>문제 선지</p>	<p>① 흥보가 '돈 한 꾸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을 보며 서민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리 만족을 느끼겠군. ② '엇그제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를 통해 흥보가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군.</p>

	<p>③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를 통해 흥보가 가난한 서민들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④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를 통해 최소한의 먹을거리도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p> <p>⑤ 흥보가 박을 타면서 '은금보화가 나오거든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흥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p>
<p>정답 해설</p>	<p>⑤ '은금보화'란 금, 은, 옥, 진주 따위의 매우 귀중한 물건을 의미한다. 은금보화를 형님에게 드린다고 말한 대목에서 자신에게 심술을 부렸던 놀보일지라도 자신의 귀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흥보의 선한 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흥보의 형님은 가난한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보가 느끼는 연민을 여기에 연결 짓기는 어렵다.</p>
<p>오답 풀이</p>	<p>① 흥보가 돈 꾸러미를 손에 들고 춤을 추는 장면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서민들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들의 소망이 대리 만족되는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p> <p>②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빌어먹던 흥보의 모습을 통해 그가 당시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p> <p>③ 흥보가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굶주린 서민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p> <p>④ 흥보네 가족이 박에서 쌀이 나오자 기뻐하며 열한 섬이나 밥을 해서 먹는 장면은, 당시 의식주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 굶주린 서민들의 궁핍한 모습을 보여 준다.</p>
<p>발문</p>	<p><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재담은 소리꾼이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담의 구조 중 대표적인 것이 '구조 만들기-구조 무너뜨리기'이다. 이는 '구조 만들기'에서 수용자가 인과 관계에 의해 일반적인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한 다음 '구조 무너뜨리기'에서 수용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구조를 무너뜨려, 긴장과 이완을 교차시켜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구조 만들기'에서 고조된 긴장감이 '구조 무너뜨리기'에서의 엉뚱한 결말로 이완되면서 웃음이 발생한다. 「흥보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재담을 형성하고 있다.</p>
<p>[A]</p>	<p>흥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흥보 큰아들놈이 썩 들어오며 제깃밥 먹듯 허겠다.</p> <p>“여,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p> <p>“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p> <p>“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यो?”</p> <p>“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p> <p>“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겼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 봅시다.”</p> <p>‘탁’ 튕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 갖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배꼽에 있는 때가 녹두 알맹이로 그저 돌돌 뭉쳐서 나가는데,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팽 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흥보 자식들이 밥을 먹다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 갖고, 우 달려들어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겨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단이 맞게 되었겠다. 흥보 자식들이 어떻게 좋던지, 거 여 배를 누르면서 꼭 누르는 것이, 이때 흥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팔랑치 재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연재로 그냥 넘어 달아오니까, 그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갯살같이 그저 불그스름히 넘어오니까 어떻게 놀래 났던지, ‘황룡 올라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p>

	<p>래서 그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몇 해에 풍년이 들어 갖고 잘되었제. 이걸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저 재담이었다. 흥보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p>
<p>문제 선지</p>	<p>①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재담의 '구조 만들기'가 시작되는군. ② 흥보의 큰아들이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시오?'라고 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수용자들은 앞으로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것을 기대하겠군. ③ 흥보 마누라가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큰아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하면서 인과 관계에 의한 결말을 예상하도록 유도하는군. ④ 흥보 자식들이 흥보의 뱃가죽을 튕기자 '땡그랑' 소리가 나고 배꼽의 때가 '팽 팽' 튕기는 장면은 '구조 무너뜨리기'로 그동안의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웃음이 유발되겠군. ⑤ 흥보의 배를 누르자 똥 줄기가 나와 운봉 연재를 넘어가고 이를 황룡으로 착각한 농군들이 절을 하는 장면은 수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므로 새로운 '구조 만들기'에 해당하는군.</p>
<p>정답 해설</p>	<p>⑤ 흥보의 배를 누르자 똥 줄기가 나와 운봉 연재를 넘는 장면과 그것을 황룡으로 착각하고 절을 하는 농군들의 모습은 수용자가 예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결말로서 '구조 무너뜨리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은 수용자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면서 웃음을 유발한다.</p>
<p>오답 풀이</p>	<p>① 흥보 마누라가 밥 먹다 쓰러진 흥보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는 장면은 재담을 위한 '구조 만들기'로, 긴장감이 상승한다. ② 흥보 마누라가 큰아들을 나무라고 큰아들이 말대꾸를 하는 장면은 수용자에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예상하게 하고 긴장감을 고조하므로 '구조 만들기'에 해당한다. ③ 흥보 마누라가 큰아들에게 호통치는 장면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하고 갈등 상황에 대한 수용자들의 기대치를 상승시키는 '구조 만들기'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 수용자들은 일반적인 인과 관계에 의한 결말을 예상하게 된다. ④ 흥보 자식들이 흥보의 뱃가죽을 튕기며 노는 장면은 수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이야기 진행이므로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조 무너뜨리기'에 해당한다.</p>

[함께 볼 지문] "기출로 확인하기 -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작자 미상, 「박흥보전」"

흥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광광 발 구르며 하는 말이,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측 목공이도 이
 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흥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듣겠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
 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워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흥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 방아 찧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
 상 매고, 이집 저집 내려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
 짐 싣기, 오 푼 받고 마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댕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흥보가,
 "내 갓망건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랴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요?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값을 때는 어찌 값게?”

㉠ “여보소, 그 말 마소. 값다 값다 못 값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다. 형님께로 떠넘기세.”

(중략)

“먹고 노니 종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요?”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 오?’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흥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라고. 볼기 놀러 쓸 데 있다.”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소?”

[A] “내 이를 테니 들어 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 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러 쓸 데 있다.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어들여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놀리어서 큰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렇게 살아 보세.”

흥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뒤통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똥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버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흥보 좋아라고,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버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뚫어 차지요.”

흥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흥보 하는 말이,

㉢ “요런 몫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볼기쪽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흥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문제 1	윗글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했다. ② 아이들이 신문물과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③ 관가에서 부담 없이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었다. ④ 황금만능 풍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⑤ 노동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정답 해설	②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담긴 소설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추론해 내는 문제이다.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말을 듣자 아이들은 벌 떼처럼 모여들어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 아이들은 흥보에게 '풍안(안경)', '송아지', '양피 조끼, 장도 비단 꽃신' 등을 사 달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아이들이 풍안과 양피 조끼 등의 신문물이나 치장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 2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시선의 빠른 이동을 통하여 긴장을 조성한다. ②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중첩하여 리듬감을 살린다. ③ 신체 부위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 효과를 자아낸다. ④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을 열거하여 궁한 신세를 드러낸다. ⑤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정답 해설	① [A]에서는 자신의 불기가 매를 맞고 돈을 버는 데라도 구실이 있다며,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불기'의 구실을 열거하고 있다. 흥보가 떠올리는 장면이 다양하다 하겠으나, 이것을 '빠른 시선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흥보는 [A]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 '긴장을 조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② '~하니, ~해 볼까'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③ '불기'를 소재로 하여 해학적인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삼정승', '양국대장', '각읍 수령' 등 자신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위를 상상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흥보 자신의 궁한 신세를 부각시키게 된다. 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3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양상을 읽어 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 선지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얽혀 있다.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④ ㉣: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⑤ ㉤: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정답 해설	<p>④ <보기>는 판소리계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답지들도 그에 따라 인물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㉔의 경우에는 흥보 마누라가 '목숨' 즉 운명대로 살고 '남의 죄로 매 맞'는 일은 하지 말자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드러나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p>
오답 풀이	<p>① '시아자씨도 야속하다'에는 '시아주버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의 설움'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p> <p>② '속이 매워 못 듣겠네'에는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장부의 허물이라'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p> <p>③ '몽둥이 서넛' 맞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형님께로 떠넘기세'라 하여 형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p> <p>⑤ '요런 몫쓸 일'이라 하여, 아비가 매를 맞으러 간다는데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는 자식들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많이 사다 주마'라 하여 자식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아버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p>

#Chapter 2. “영역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10~13번 지문][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관한 법률]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속된다. 따로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자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4순위이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동일한 순위자들 중에는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상 가장 가까운 이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자식이 살아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되고, 1순위 혹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 다른 공동 상속인이 받는 상속분의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유언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받는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이라 한다.

한편,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며, 사망자를 피대습자라 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상속받았을 재산과 채무를 자신의 법정 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 A의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두 자녀 중 한 명이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사망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부인과 아들은 A의 재산 중 절반을 1.5: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는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민법에 따르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해야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더라도 여전히 피대습자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하여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친족들이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민법에 배치되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 혹은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4순위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취득하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그 외의 상속인은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인 역시 피대습자의 지위에 따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인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해 주면서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 및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속된다. 따로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자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C)이 1순위,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C)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C)이 4순위이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동일한 순위자들 중에는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상 가장 가까운 이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자식이 살아 있다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되고, 1순위 혹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어 다른 공동 상속인이 받는 상속분의 1.5배를 받는다. 이렇게 유언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받는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C)이라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핵심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어느 지문이든 첫 문단은 꼼꼼하게 읽어줘야 하지만, 첫 문단이 이렇게 길 때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문단의 독해 수준이 지문 전체의 독해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상속'의 개념은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사망자가 따로 누구에게 얼마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③ 유언이 없는 경우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됩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 '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 ④ 이때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다음 문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1순위 : 자녀,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친족(방계 혈족)
 여기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사람은 자식들이 되는 거네요.
- ⑤ 위의 상속 순위에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순위자들 중에서는 친족 관계상 가까운 이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⑥ 우리는 '촌수'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니, 두 번째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례(『 』)를 준 것입니다. 1순위자인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 2순위인 부모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⑦ 그럼 1순위인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되는 걸까요? 이때 '친족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친족 관계'상 자녀가 손자녀보다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는 '친족 관계'에서 밀려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⑧ 마지막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까다롭습니다. 급하게 읽으면 헛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⑨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 케이스 (1) 1,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 1,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됨
 → 다른 '공동 상속인'의 1.5배 상속분을 받음
 - 케이스 (2) 1,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단독 상속인'이 됨
- ⑩ 이렇게 유언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받는 상속분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C)**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대습상속(C)**이라 하며, 사망자를 **피대습자**라 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상속받았을 재산과 채무를 자신의 법정 상속분만큼 받게 된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 A의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두 자녀 중 한 명이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사망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부인과 아들은 A의 재산 중 절반을 1.5: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는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행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 ②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③ 정리해봅시다. 피상속인 A는 아들 B와 손자 C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A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B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B가 상속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는 손자 C가 B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C가 B 대신 A에게 상속을 받는 것이지요. 이때 사망한 B는 '피대습자'가 됩니다.

$$A = \text{피상속인} / B = \text{피대습자} / C = \text{대습상속인}$$
- ④ 이때 피대습자 B에게 손자 C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있었다면, 손자 C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B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분은 배우자와 손자 C에게 1.5: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 ⑤ 마지막 문장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해야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더라도 여전히 피대습자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하여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친족들이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행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앞에서 '피대습자', '피상속인'과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이 문단부터 머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런 용어들을 설명해주지 않고 가져다 쓰기 때문이지요.
- ② 민법에 따르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즉 상속이 실현되기 전에 사망해야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피대습자의 가족, 즉 대습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 ③ 다음은 '상속인의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 대습상속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상속 포기는 쉽게 말하면 상속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받을 수 있는 상속분도 없고, 대습상속을 할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대습상속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 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친족들이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있고 자녀 B, 손자녀 C가 있었을 때 자녀 B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자녀 C는 B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자녀 C는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자신보다 우선인 자녀 B가 상속 포기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러면 손자녀 C가 자녀 B 대신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민법에 배치되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 혹은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4순위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유류분(C)**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취득하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그 외의 상속인은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인 역시 피대습자의 지위에 따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인 유류분권(C)은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해 주면서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 및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또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친구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그의 자녀는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② 이런 경우에도 4순위, 즉 방계 혈족이 아닌 친족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③ 유류분의 상속분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직계 비속,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그 외의 상속인 = 법정 상속분의 1/3

- ④ 대습상속인 역시 대습상속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이렇게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상속인'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Chapter 2. “영역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언매 / 화작

[참고] 언어(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작이나 매체의 경우 다시 보면서 출제되는 유형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언어 37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1. 교체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꺠], 밖[꺠], 부엌[부꺠]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ㅊ, ㅍ, ㅌ, ㅍ, ㅎ	ㄷ	낱, 날, 낫, 낫, 낫, 낫, 낱 → [낱]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윗 → [입]
ㅇ	ㅇ	강[강]

(2)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꺠물], 낫는다[꺠는다→꺠는다], 부엌문[부꺠문→부꺠문]
ㄷ	ㄴ, ㅁ 앞	[ㄴ]	닫는[꺠는], 걸모양[꺠모양→꺠모양], 쫓는[꺠는→꺠는]
ㅂ	ㄴ, ㅁ 앞	[ㅁ]	밤물[꺠물], 앞니[꺠니→꺠니], 값만[꺠만→꺠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3) 유음화(교체)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발이 → [바치], 닫히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닫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교체)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뺨], 꽃병 → [꼰병],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크]

- 피동, 사동 접사 '-기-'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기-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휴지 있어 이어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ㄷ, ㅅ, ㅈ]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짱]

2.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는 음절 말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ㄱ, ㅅ'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ㄹ, ㅂ, ㄴ, ㄷ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ㄹ, ㅂ, ㄴ, ㄷ]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갑], 닭 → [닥],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ㄷ, ㄹ, ㄹ, ㅂ, ㄷ, ㄹ	자음 앞	[ㄴ, ㄴ, ㄹ, ㄹ, ㅂ, ㅂ, ㄷ, ㄷ]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핥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ㄴ,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짤께]

ㄹ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ㄹ'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ㄹ'은 'ㅂ'이 남는다.

3. 축약

(1)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ㅈ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앓던 → [안똥],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낙카산], 만형 → [만똥], 값 흥정 → [갑똥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첨가

(1)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벼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ㅀ'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	늑는	늑는 → 늑는 → [늑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	뫼다	뫼다 → 뫼다 → [뫼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볼연지	볼연지 → 볼년지 → [볼련지] ㄴ 첨가 유음화

[선택지 해설]

37. ③

정답해설 답은 ③이야. 먼저 ㉠의 '늑는'에서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늑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이때, 비음화는 '파열음'이라는 조음 방법이 '비음'이라는 조음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 동화'에 해당해. 그럼 '늑는'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다음으로 ㉢의 '볼연지'에서는 먼저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볼년지'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유음 'ㄹ'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비음 'ㄴ'이 유음 'ㄹ'으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이때, 유음화는 '비음'이라는 조음 방법이 '유음'이라는 조음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 동화'에 해당해. 그럼 '볼연지'에서도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의 '늑는'에서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늑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이 과정에서 받침 'ㄹ'에서 일부 자음, 즉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어. 다음으로, ㉡의 '뫼다'에서는 먼저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뫼다'가 된 후, 파열음 'ㄱ'과 'ㄷ'이 만나 뒤 음절 초성인 'ㄷ'이 된소리인 'ㄸ'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이때 종성의 'ㄱ'은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ㄱ'이 'ㅇ'으로 되는 것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봐. 그러므로 ㉡에서는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어.

②을 살펴보자. 먼저 ㉠의 '늑는'에서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늑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총 2번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다음으로 ㉡의 '뫼다'에서는 먼저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뫼다'가 된 후, 파열음 'ㄱ'과 'ㄷ'이 만나 뒤 음절 초성인 'ㄷ'이 된소리인 'ㄸ'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여기에도 총 2번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④를 살펴보자. 먼저 ㉠의 '늑는'에서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늑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에서 탈락되는 음운은 'ㄹ'이지. 다음으로 ㉢의 '볼연지'에서는 먼저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볼년지'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유음 'ㄹ'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비음 'ㄴ'이 유음 'ㄹ'으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지.

⑤를 살펴보자. ㉠의 '늑는'의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ㄴ, ㄹ, ㄱ, ㄴ, ㄹ, ㄴ'으로 7개야. 하지만 음운의 변동 과정에서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서 [늑는]이 돼. 이때, [늑는]의 음운의 개수는 'ㄴ, ㄹ, ㅇ, ㄴ, ㄹ, ㄴ'으로 6개야. 탈락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 다음으로 ㉡의 '뫼다'는 본래 'ㄹ, ㄷ, ㄱ, ㄷ, ㄹ'로 5개야. 그리고 음운의 변동 과정에서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뫼따]가 돼. 이때 [뫼따]의 음운의 개수는 'ㄹ, ㄷ, ㄱ, ㄸ, ㄹ'로 5개야. 교체만 두 번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의 '볼연지'의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ㄹ, ㄱ, ㄹ, ㄴ, ㄷ, ㄴ'로 7개야. 하지만 음운의 변동 과정에서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고 교체인 유음화가 일어나서 [볼련지]가 돼. 이때 [볼련지]의 음운의 개수는 'ㄹ, ㄱ, ㄹ, ㄹ, ㄴ, ㄷ, ㄴ'로 8개야. 첨가가 일어나 음운이 개수가 한 개 늘었어.

[언어 38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관형어]

○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관형사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관형어의 실현 양상	예
① 관형사	영희가 새 옷을 입었다.
② 체언	나는 시골 풍경이 좋다.
③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나는 시골의 풍경이 좋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으)ㄹ' 사용)	나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좋다.
⑤ 서술격 조사의 관형사형	학생인 네가 왜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더 알아보기] 관형절로 안긴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고기를 잡을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고기를 잡던 사람이 없다.

[선택지 해설]

38. ②

정답해설 답은 ②야. ㉠의 '다른'은 관형사인지 용언의 관형사형인지 고민해야 해. 만약 '다른'이 관형사라면 '다른'을 서술어로 바꾸어 문장을 만들지 못할 거고, 용언의 활용형이라면 서술어로 바꾸어 문장을 만들 수 있어. 학습 활동의 예시를 보자. '그는 공부 말고 다른 일에는 소질이 없다.'에서 '다른'은 '*일이 다르다' 등의 서술어로의 변환이 불가능해. 문장을 만들면 의미가 달라지거든. 이는 이 '다른'이 처음부터 관형사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참고로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어로 사용되면 이는 곧 관형절이 관형어로 기능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예쁜 꽃을 보았다.'에서 '예쁜'은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이자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을 가져 관형절이 된 후, 안겨서 체언 '꽃'을 꾸미고 있는 거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의 '웬'은 '어떠한'을 의미하는 관형사야. 태어날 때부터 '웬'의 형태를 가지고, '사내'라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지.

③을 살펴보자. ㉡의 '곧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곧 시험을 보기'야. 이는 곧 '(나는) 곧 시험을 보다'라는 문장이야. 종결 어미 '-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뀐 후 안겼어. 참고로 '안긴문장'이라는 것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때 그를 '안긴문장'이라고 해. 그럼 '곧 시험을 보기'가 명사절로 안겨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 보자. '곧 시험을 보기'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은 '때문'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명사절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게 맞아.

④를 살펴보자. ㉢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수확의 계절이 되었다.'에서 관형어는 '수확의'야. 이때 '수확'은 체언이며,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계절'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어.

⑤를 살펴보자. ㉣의 '어제 기차에서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다.'에서 관형어는 '고향'이야. '고향'은 체언이야. 체언이 격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뒤의 '친구'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어.

[선택지 해설] - [매체 41번]

41. ③

정답해설 답은 ③이야. (나)의 6문단의 '예컨대 우리 ▲▲도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농촌 관광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유사한 '농산물 수확 체험', '떡메 치기 체험' 등으로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농산물 수확 체험'과 '떡메 치기 체험'이 제시되고 있어. 그런데 해당 문장에서는 이 체험들이 우리 지역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 유사한 체험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선지에서 '농산물 수확 체험'과 '떡메 치기 체험'등을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체험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틀렸어. ㉔와도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가)의 표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촌 관광 정책, 확 바뀌어야'야. 변화를 요구하는 표제이므로 이는 하향식 농촌 관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맞아. 그럼 이 부분이 ㉔의 특성이 반영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㉔에는 ○○○일보의 특성이 제시되고 있고, ○○○일보의 특성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 그럼 주민들의 의사가 표제에 반영되었는지를 보면 되지. 2문단에 보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정부 주도로 결정 및 진행되어 온 하향식 농촌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일보의 특성이 표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②를 살펴보자. (가)의 마무리 부분에 인용된 △△ 관광 협회 '☆☆☆ 대표'의 발언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농촌 관광이 지역에 정착이 가능하고 관광객에게도 더 좋을 거라는 거야. 이는 향후 농촌 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한다는 ㉔의 특성과도 통해.

④를 살펴보자. (나)가 다루고 있는 연구 결과는 '■■■ 경제 연구소'에서 진행한 거야. 그리고 ㉔에서는 이 연구소가 농촌 관광에 대한 연구를 여러 번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소라고 했어. 이를 통해 (나)의 연구 결과는 농촌 관광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서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지.

⑤를 살펴보자. (가) 기사는 신문의 '사회면'에, (나) 기사는 신문의 '경제면'에 배치되었어. 이는 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사의 관점이 기사의 배치에도 반영되기 때문이야. 해당 주제를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 중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관점이야.

[선택지 해설] - [화작 37번]

37. ⑤

정답해설 답은 ⑤야. <자료 2>에는 '실제 그림, 신경절 세포, 광수용기, 우리가 인지하는 그림'이 구조화되어 있고 거기에 '활성 신호'와 '억제 신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시되어 있어. 그리고 ㉔에서는 이 자료를 제시하며 신경절 세포가 광수용기로부터 어떤 활성 신호와 억제 신호를 받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설명하고 있어. 즉, ㉔ 부분에서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신경절 세포가 광수용기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는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자료 2>에서는 그림으로 활성 신호와 억제 신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자료 1>에는 실제 자극 강도와 인지된 자극 강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생기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는 그림이야. 그리고 ㉔ 부분의 내용과도 통해. 하지만 선지에서 <자료 1>이 광수용기의 활성 신호가 신경절 세포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이 틀렸어.

②를 살펴보자. ㉔ 부분은 망막의 구조와 광수용기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 그럼 실제 자극 강도와 인지된 자극 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1>이 사용될 이유가 없어.

③을 살펴보자. <자료 1>이 우리 눈에서 발생하는 착시 현상을 설명하는 건 맞아. 하지만 ㉔ 부분의 내용은 자극의 강도와 관련이 없어. ㉔은 신경절 세포로 활성 신호와 억제 신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지 자극의 강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야.

④를 살펴보자. ㉔ 부분은 실제 자극의 강도와 인지된 자극의 강도의 차이에 의한 착시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므로 선지에서 ㉔ 부분에 망막의 수직 구조가 연결된 순서가 제시되어 있어서 <자료 2>를 활용했다는 건 틀렸어.

[선택지 해설] - [화작 43번]

43. ①

정답해설 답은 ①이다. <자료 1>은 '도서 정가제 시행 이전과 이후 출판사 수 및 신간 발행 종수 비교'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로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신간 발행 종수가 증가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에 2문단의 '그러나 도서 정가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신인 작가들의 도서 출간 비율이 높아졌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출간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출판업계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어. 즉,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출판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거지.

[오답풀이]

②를 살펴보자. <자료 1>은 '도서 정가제 시행 이전과 이후 출판사 수 및 신간 발행 종수 비교'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로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신간 발행 종수가 증가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는 선지에 제시된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대형 서점의 가격 경쟁력 약화'나 '대형 서점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③을 살펴보자. <자료 2>는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로 '우리나라 도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20년간 신간 도서 정가 평균 인상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 매우 낮았다.'라는 게 핵심이야. 하지만 도서 가격이 매우 낮은 쪽으로 인상된다는 사실이 도서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이 낮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는 없어. 둘의 연결고리가 자료나 초고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④를 살펴보자. <자료 2>에 우리나라 도서 가격이 다른 OECD 가입국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내용은 있어. 하지만 초고의 4문단에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오히려 도서 정가의 평균 인상률은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이에 선지의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면 출판사에서 책값을 올리기 쉽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은 맞지 않아. 초고의 내용은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정가 인상률이 '하락'했다는 것인데, 선지는 '상승'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⑤를 살펴보자. <자료 1>, <자료 2>, 초고 어디에도 '공공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양이 급증'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